

# 동양학적 위기관리론

권일찬

---

현대사회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뉴턴 데카르트적인 물질론적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과학관과 자본주의 탐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현대사회 위기관리의 특성은 근본적 원인 문제를 소홀히 하고 주로 피상적이고 사후적(post-hoc)인 대응과 복구문제에 치중하였다. 근본적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물질 일원론적이고 전체론적 유기체론적이며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학문이다. 그러한 학문이 동양학, 특히 주역에서 비롯된 역학과 역술이다. 또한 역학과 역술은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므로 각종 위기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의미 있는 학문이다.

주제어: 현대사회 위기, 현대과학과 자본주의, 주역

---

## 1. 서론

본 고에서는 현대사회 새롭게 대두되는 위기관리 문제에 있어서 동양학, 특히 주역에서 비롯된 역학과 역술의 학문적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구체적인 실증이나 사례연구가 아니고 동양학적 내용에서 현대사회 재난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주로 거시적인 방향제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주류 학문인 제도권의 물질론적이고 기계론적이며 환원주의적인 서양과학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점 때문에 새롭게 대두되는 학문적 노력이 시스템이론이다.

현대 서양과학기술적 학문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쪼개구 쪼갠 칸막이 식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학문적 문제점과, 둘째, 보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방법론적 개별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로 편향된 학문, 셋째, 물질론적 기계론적(mechanic) 형식화된 학문적 성격이다. 이로 인해서 현대사회 여러 가지 인간사회 위기와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학문적으로는 현실적 적합성, 즉 적실성(relevance)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전체론적(holistic)이고 종합적이며 유기체론적인 성격의 학문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sup>1)</sup>

---

1) 분석적 학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많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논할수록, 그것이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 그래서 정신수련자(불교의 선 수련, 주역의 기 수련, 각종 명상 수련

오늘날의 과학은 현재의 세계관만을 고집하다보니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이제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론을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류의 성장이 방해받기 시작했으며, 전문성과 세분성, 물질주의, 또 컴퓨터 같은 기계적인 기능만을 강조하다보니 인류는 스스로 전멸할 위험에 직면하였다.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얻어진 개인의 능력에 자만한 나머지 이기적인 생각들이 팽배해짐으로써 전체감이나 목적성이 상실되어 버렸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체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이차크 벤토프, 1995: 26).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전체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현대학문의 개별적 환원주의 학문적 특성으로 나타난 문제점이고, 목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신 물질 이원론적 기계론적 물질론적 학문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현대물리학자 이면서 신과학자인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위기의 특징은 총체적인 시스템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뉴턴 역학적 물질론적·기계론적, 정신·물질 이원론, 합리성과 분석적 학문, 그리고 환원주의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기체적·정신 물질 일원론, 직관적이며 종합적 학문, 그리고 전체론적 사고와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서양과학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론적(holistic)이고 통합적(integrative)이며 유기체론적(organic)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나타난 학파가 시스템이론(system theory)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론이 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은 있으나 이들이 하고자 하는 학문적 내용은 기존의 물질론적 기계론적 개별주의적 환원주의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입장에서 전체론적 유기체론적 종합적 학문으로의 방향 제시는 있어도 이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충족시켜 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적 결과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동양에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적 학문이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학문이 있다. 그것이 주역에서 비롯된 기와 음양오행론으로 체계화된 역학과 역술이다. 현대물리학자인 카프라는 음양이란 용어는 넓은 생태적 견해를 가지고 문화의 불균형을 분석하는 데에는 특히 유용한 용어이다. 생태적 견해는 일반 시스템 이론의 뜻에서 시스템관의 견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시스템 이론이란, 세계를 모든 현상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며 이 기본 구조에서는 그 특성이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통합된 전체를 시스템 이라고 부른다. 살아 있는 조직체, 사회 및 생태계는 모두 시스템이다. 고대 중국의 음양 사상이 서구 과학이 최근에야 연구하게 된 자연 시스템의 본질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혹적인 일이다.(Capra, 1988: 42-43)

---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온전한 하나로 이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하나하나 따로 격리시켜놓거나 나누어놓지 않고 '전체'로서 살펴볼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안에, 자아 안에, 그리고 전통, 조건화, 선입견, 희망과 절망이라는 배경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작용이 멈출 때에만 그렇게 할 수 것이다(Krishnamurti, 2007: 15).

## II. 주역학의 학문적 인식모형

역은 자연을 그대로 본받은 학문이므로, 자연의 운행 질서 및 인류 사회의 근본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 하늘(天)의 기운은 땅에 영향을 주고, 땅(地)은 하늘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하늘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킨다. 하늘은 이것을 받아들여 변화하고, 그 변화를 다시 땅에게 주는 순환의 연속이며, 그 가운데 사람(人)으로 대표되는 만물이 하늘과 땅의 교감작용에 영향을 받고, 다시 자연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교감작용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자연의 도이며, 그 과정을 64괘라는 틀 속에 넣은 것이 주역이므로, 주역 안에 우주삼라만상의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 속에 벌어지는 자연 현상을 한마디로 한다면, 한번 양하고 한번 음하는 과정의 순환(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로 치면 낮이 가면 밤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번성기가 가면 쇠퇴기가 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통하여 변함으로써, 우주와 서로 돕는 관계로 병립하고자 하는 것이 주역을 배우는 목적이다(김석진, 1994. 15)

간단히 말하면, 사고전서<sup>2)</sup> 총목제요에 밝힌 바와 같이 주역은 천도를 미루어 인사를 밝힌 학문이다(易之爲書 推天道以明人事者也 : 역의 글됨이 천도를 미루어 인사를 밝힌 학문이다). 즉, 천도는 대우주의 변화 이치이고 인사는 소우주 인간의 일들을 의미한다. 천도인 대우주는 소우주인 인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천도의 시각에서 인사를 밝힌 학문이다. 인사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건강과 길흉화복에 관한 상수역과 인간의 삶에 관한 철학 사상과 도리적인 의리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 주역은 천지인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우주론적 전체론적 학문이고, 둘째, 천지인 간에 상호작용 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는 기운이라고 하며, 셋째, 주역의 기본 이론은 음양론이고, 음양론의 변화 이치는 일음일양지위도이며, 넷째, 주역의 학문적 목적은 우주와 서로 돕는 관계를 병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역에서는 우주삼라만상의 가장 기본적인 실체를 기(氣)로 보았으며 기의 작용과 변화 원리를 나타낸 구체적인 개념과 이론을 음양오행론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물의 접근 방법이 우주론적이다.

주역에서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적 개념을 기(氣)라고 말할 수 있다. 기(氣)는 기(器)와 신(神) 그리고 심(心)의 실체적 구성 인자이고, 기의 작용과 변화 원리는 도와 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氣 일원론적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 즉, 기의 작용과 변화원리인 도와 리로 기적(器的)

2) 사고전서(四庫全書)는 중국 청나라가 국력을 기울여 편찬한 동양 아니 세계 최대의 총서로서 선진시대부터 청대 말기까지 역대 전적 79000여 권을 망라하여 사고(四庫), 즉 經·史·子·集으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이다. 사고 전서의 첫 번째 소개한 책이 周易이다.

인 사물을 이해 설명하고, 법칙적인 도와 리로 설명이 안되는 묘한 현상은 신의 작용으로 본다(신화론).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의식인 심이 기(氣)와 기(器) 그리고 인격적 신(有神論)에게 영향을 주고, 반대로 이들에 의해, 기를 매체로 해서,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는 실체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기능적 매체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주역은 기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 설명하는 기 일원론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는 모든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자일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기능적 매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기와 신의 세계를 더 중시 한다.

동양과학의 기본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에 근거해서 보면 객관적 사물의 세계인 기(器)의 세계와 객관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기(氣)와 신의 세계 그리고 주관적인 심의 세계로 볼 수 있는데 주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氣)와 신의 세계를 더 중시하고 강조하였다. 즉, 보이지 않는 기(氣)와 신의 세계가 보이는 객관적 사물의 세계인 기(器)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기(氣)와 신의 세계의 작용과 변화원리의 관점에서 모든 기적(器的)인 객관적 사물의 현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sup>3)</sup>.

기(氣)와 신 그리고 심의 작용과 변화 원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개념과 이론이 음양오행론이다.

주역의 인식론적 체계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쪽에 있는 <그림 1>과 같다(권일찬, 2010: 223-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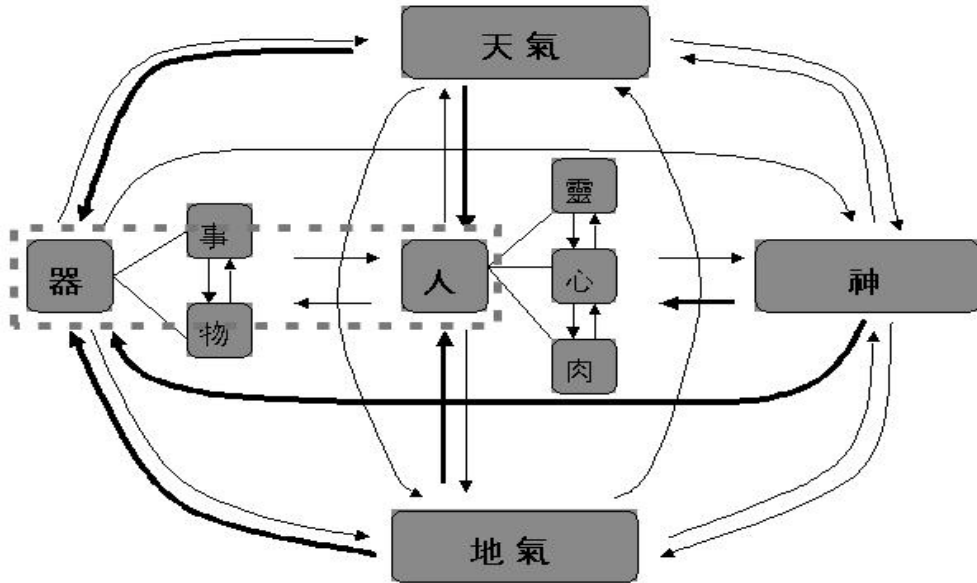
먼저 인간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인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우주삼라만상의 큰 변수로는 천기 · 지기 · 기(器 : 만물, 만사) · 신(상제, 하느님, 사머니즘적 신)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인간은 더 구체적으로 영(靈) · 심 · 육 세 가지의 구성체로 볼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천기 · 지기 · 기(器) · 신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체는 기(氣)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우주삼라만상은 서로 독립된 것들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의존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의존관계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매개체는 기(氣)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양학에서 우주삼라만상의 인식모형은 거듭 말하지만 기(氣)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만물만사는 하나이면서 전체(single whole)이다.

여기서 기일원론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인간을 비롯한 우주삼라만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양학자들

3) 세계적인 주역 연구자인 독일의 리하르트 빌헬름이 쓴 주역강의의 서문에서, “역경(易經)의 철학이 인간의 의식적인 삶에서부터 무의식적인 영역으로까지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우주-영혼의 체험에 대한 통일적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고 하였다. 즉, 역경의 체계는 다차원세계의 표상이며 이 세계 내에는 불변하면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있는 것이다.” 그 패턴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개념과 이론을 태극 음양오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의식적 무의식적 세계는 인간의 주관적 심의 세계이고, 우주는 천지자연의 기(氣)와 기(器)의 세계이며, 영혼은 신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역은 기(氣) · 기(器) · 심 · 신의 다차원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역은 보이는 세계인 기(器)의 세계, 보이지 않는 기(氣)와 신의 세계, 그리고 주관적인 인간의 심의 세계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임의로 비과학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이점은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입증 되고 있다.4)



<그림 1> 주역학의 우아일체적(宇我一體的(universal unitary whole)학문의 인식모형

<그림 1>에서 구체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기(氣)의 작용과 변화원리를 도와 리라고 볼 수 있다. 도와 리에 해당되는, 우주삼라만상의 구성원리와 변화원리 및 작용을 나타낸, 소위 과학적 모형(scientific model)이 태극과 음양오행론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극, 음양, 사상, 팔괘, 육십사괘, 그리고 천간지지와 오행론이다.

위의 그림에서 ‘우아일체적 학문의 인식모형’이란 개념이 있다. 이는 동양학의 학문적 접근이 우주론적이며,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론적이란, 미시적인 서양과학과 대비되며, 이는 우주론적 큰 틀에서 인간과 사물을 고찰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우주삼라만상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은, 앞에서 거듭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태극 일기(一氣)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당연히 하나이다. 우주와 내가 하나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대별해서 관계를 나타내 보면, 우주는 대우주이고 인간과 사물은 소우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우주인 천지자연과 소우주인 인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대우주인 자연과 소우주인 인간과 하나라는 의미는, 각각의 구성체가 기라는 하나의 실체로 이뤄져

4) 양자역학자들은 우주삼라만상을 에너지 일원론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의 주장도 우주삼라만상은 모두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다(w. hiramid. kr의 양자역학과 마음DVD). 양자역학의 에너지 개념과 동양학의 기 개념은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동일한 개념을 용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된다.

있고 또한 인간과 자연은 기라는 실체를 매체로 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역의 우주관이고 세계관이다.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구체적인 관계를 나타낸 개념과 이론이 음양오행론이다.

<그림 1>에서 각 구성 요소 간에 상호작용을 나타낸 화살표 중에서 더 굵게 표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더 굵게 표시한 것은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모든 구성요소들은 어느 것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모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데, 인간과 사물인 기(器)는 하늘과 땅의 기(氣) 그리고 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인간과 사물인 기(器)는 천기·지기·신에 대해 종속변수적 위치에 있고, 천기·지기·신은 독립변수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 III. 현대사회 위기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인류의 역사는 문제 해결과정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문제란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의 문제 사회적 국가적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 또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문제와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문제로 나뉘볼 수 있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문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재보다 향상된 밝고 희망적인 세계 건설을 위한 문제를 말하고,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문제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나타나는 위기의 발생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말한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발달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 반면 사회가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각종 위험과 위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강 소프스키(Sofsky)는 재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유하는 선구적인 사상가다. 이미 1993년 “테러의 질서”라는 저서를 통해 이 문제를 일찍이 제기했고 1996년에는 ‘폭력에 관하여’, 2002년 ‘공포의 시대’ 등을 통해 유명해 졌다. 최근에는 ‘안전의 원리’라는 저서를 펴내 호평을 얻고 있다(조선일보 2006년 1월 1일자 ‘재앙 담론이 뜨고 있다’에서). 소프스키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 이념은 더 이상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주장한다. 울리히 벡 교수 등이 주장하는 ‘위험사회’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대사회 안전이 주요한 이념으로 대두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방국가와 이슬람 지하드와의 테러전쟁이고 또 하나는 현대의 복지국가들이 안고 있는 재정위기이다. 이 둘 다 자유와 안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산폭발, 지진, 홍수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해 우리로서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강력한 사전 경고 이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자연은 늘 인간 앞에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소프스키).

2005년에만 해도 지진해일 홍수 대지진 조루인플루엔자 등으로 전 인류는 공포감에 싸였다. 테러와 전쟁, 인종폭동 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짐에 따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앙은 재난이나 자연재해를 포괄함과 동시에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과국’과도 연결된다. 무엇보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근대 사회의 구성원리와 ‘과학기술에 의한 자연지배’라는 근대인의 자신감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그 때문에 사상계에서는 모더니티의 붕괴, 현실과 환상의 혼합, ‘국가’ 이데올로기의 몰락, 인간성의 파괴, 신과 종교에 대한 관심 회복, 자연에 대한 겸손 등이 새로운 주제가 되고 있다(조선일보 2006년 1월 1일 A11면). 최근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관심사가 인간에서 자연과 신으로 바뀐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새로운 지적 흐름에 대해 이진우 계명대교수(철학)는 “재앙의 담론은 기존의 서구적인 사고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양인의 입장에서는 흥미를 더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시대적 흐름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재앙에 대한 현대사회의 대응 면에서 소프스키 재앙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자연 재난에 대한 현대 서구 중심의 사상철학과 과학기술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자연관,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동양사상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위기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나, 위기로 인한 피해 영향의 범위가 중범위 이상이면서 위기의 강도는 고강도이고, 체계구성원의 건강·생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어 체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건이다(이재은 외, 2006: 58-59). 위기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노력으로 과거에 없던 위기관리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 시켰다. 위의 소프스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동안 서구중심의 문화를 지배해 왔으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 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한 시대적 이념으로 대두되면서 위기관리는 21세기 새로운 학문으로써 크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위기관리란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일상화된 과정을 의미한다(이재은 외, 2006: 63).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단계로써는 네 개의 국면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위기완화, 위기준비, 위기대응, 위기복구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재은 외, 2006: 68-74).

완화(mitigation)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협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위험 감소 계획을 집행하며,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의 정도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위기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 하거나 위기 요인이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준비(preparedness)단계는 위기 발생시의 위기 대응을 위한 운영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위기 발생시 위기 대응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게 될 중요 자원들을 미리 확보한다. 둘째, 위기 발생 지역 내외에 있는 다양한 위기 대응 기관들의 사전 동의를 확보한다. 셋째, 위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위기 대응 활동가들을 훈련시킨다. 넷째, 위기 대응 계획을 사전에 개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나 경보 체계 및 다른 수단들을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대응(response)단계는 실제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위기 관리 기관들이 수행해야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대응 단계는 완화단계, 준비단계와 상호 연계함으로써 제2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위기관리의 실제 활동 국면을 의미한다.

복구(recovery) 단계는 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 기간으로부터 그 지역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위기 복구 단계의 활동은 피해 지역이 원상 복구를 하는 데 필요한 원조 및 지원 활동으로 전형적인 배분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위기에 대한 현대사회의 흐름과 위기관리론의 개념과 대응단계를 살펴보았다.

현대사회 위기에 대한 시각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대 과학적으로 뚜렷한 근본적인 대응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위기관리론은 주로 위기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서양과학 기술이 그렇듯 주로 피상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발생이후 대응과 복구문제에 초점을 두는 사후 약방문격(post-hoc)인 경우가 주류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은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는 것보다도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필승 전략이듯, 위기관리의 최고의 전략 전술은 위기를 사전 예방하여 위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위기관리 전략이다. 즉,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위기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양학적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V. 현대사회 위기관리에 있어서 주역학의 의미

동양학, 특히 주역학의 관점에서 위기관리문제와 관련해서 고찰하면 주로 위기관리 단계의 완화 준비 단계에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위기관리 단계의 완화 준비 대응 및 복구 단계에 있어서 완화 준비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역과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와 위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 1.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장기적이고 근본적이며 이상적인 위기관리 전략).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3월 16일자 신문 다산칼럼에서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인 전성철씨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이웃나라 일본의 대참사를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자연을 개척해 온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인류가 오랜 세월 분투 끝에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지만 무한한 자연의 원리에 비춰보면 한갓 미약한 성취에 불과했음을 일깨운다. 이런 점을 때때로 잊고 살아가는 인류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경고가 아닌가 싶다. 이번 참사를 보며 느껴지는 단어는 단 하나 ‘겸손’이라는 단어다. 자연은 이번 참사를 통해 인류에게 ‘겸손’하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서유럽의 재정파탄에 의한 국가 부도 사태 문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성실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탐욕의 결과 그리고 현대 서양과학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가 부도 사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과 제도로 규제 간섭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갓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과 제도적인 규제 간섭보다도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을 조절하는 자기 절제의 방법과 학문적 개선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위에 소개한 두개의 사례 내용의 핵심은, 서양과학기술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한 현실감각의 부정확성, 물질에 대한 인간 욕망의 이기적인 탐욕스러움 그리고 자연 앞에 오만으로 인해서 그 결과 엄청난 재앙을 당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학문적 개선과 자기 절제 및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문적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탐욕과 인간이 자연 앞에 오만하게 한 주범이 무엇이고, 학문적 개선과 스스로 절제하며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인류가 탐욕스럽고 자연 앞에 ‘오만’하게 한 주범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현대사회 지배적 위치에 있는 물질적 가치를 무한정 추구하는 것을 조장하는 자본주의 물질문명과 1+1=2라는 식의 물질론적이고 기계론적 정신 빠진 환원주의적 분석적 서양과학기술이다. 즉, 물질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탐욕과 정신빠진 물질론적 기계론적 개별주의(individualism) 뉴턴 데카르트적 현대서양과학기술의 자연관에 의해 자행된 인간성 상실과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오만함의 결과이다. 따라서 탐욕스러운 현대 자본주의와 오만한 서양과학기술이 계속 살아있고 존속하는 한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은 없어질 수 없다. 따라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일본의 대참사와 같은 자연재앙을 벗어날 수 없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지배적인 주류 학문인 서양과학기술적 학문의 분석적 환원주의(reductionism)와 전문화되고 파편화된 학문적 편협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없는 능력으로 인한 학문적 적실성(relevance)의 문제이다.

그러면 인류가 '자기 절제'와 자연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인류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어떻게 살고 대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즉, 자기 절제와 자연 앞에 인간이 겸손해야하고 또한 겸손하고 자기 절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서양과학기술 보다 새롭고 앞선 과학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막연히 절제하고 겸손 하라고 하는 것은 실용성 없는 단순한 방향제시적 내용은 모호하고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대 자본주의와 서양과학기술로 인해서 탐욕과 오만해졌다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만함을 겸손하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물을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현실적으로 실천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과학기술적 학문이 정신물질 일원론적이고 유기체론적이며 생태론적 정신차린 그리고 우주적 전체론적 과학기술적 학문인 동양과학기술이며 정신과학기술인 「주역」이다. 「주역」 중에서도 제도권 공맹 노장사상 성리학 중심의 의리역 보다도 과학기술적 학문인 미아리 철학관 중심의 상수역인 역학과 역술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학기술이다.

## 2. 재난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위기 관리 전략).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무엇보다도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여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위기 발생 이후보다는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이재은 외, 2006: 74).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모든 재난의 예측은 서양과학적 관점에서 만 예측을 하여 대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서양과학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점으로 인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동양학에서도 예측을 위한 학문이 있으니 그것이 주역이다.

주역 계사전 제 7장에 성인이 주역을 지은 동기가 '易之興也 其於中古乎 作易者 其有憂患乎 患乎 患乎'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주역은 인간의 삶속에 일어나는 각종 우환, 현대적 표현으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성인이 백성을 위해 내놓은 철학이요 과학이며 종교적 학문이다.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해서 피흉추길, 흉한 일은 피하고 길한 일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추구하기 위한 학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서양과학의 학문적 목적이 현상을 이해 설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prediction)을 하여 대비(control)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차이점은 주역의 학문적 출발이 우주론적이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기와 신의 세계를 종합하여 예측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서양과학기술이 보이는 객관적 개개의 사실에 근거한 것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예

측학문이다. 즉, 서양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과학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현대 위기관리론의 주요 개념인 재난(disaster)에 대한 어원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으로 '분리, 파괴, 불일치'를 의미하고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별)'을 의미하므로 결국 재난은 “별(star)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하나의 재앙(calamity)”이라고 인식했다(이재은 외, 2006: 109). 즉,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하나의 재앙이라는 표현은 주역이 우주론적으로 접근하여 사물을 예측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주역의 우주론적이란 지구 주변의 태양과 달 그리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펼쳐진 자미원의 28수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온갖 길흉화복적 일을 밝혀 놓은 것이다. 공자가 주역을 해설한 계사전에 보면 ‘天垂象 見吉凶, 하늘에서 상을 드리우면 길흉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으며, ‘在天成象코 在地成形하니 變化見,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를 이루니 변화가 나타났다. 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하늘의 못 성좌들과 일월성신(日月星辰)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이끌어주는 공조작용에 의해서 파생되는 기운을, 인간이라는 첨단기계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기운대로 행동하며 발전과 변화를 영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의 운동법칙에 따라 각종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고, 태평한 세상, 천재지변, 환란, 전쟁, 살상 등이 뒤엉키는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길흉의 발단은 사람들의 사상, 행위, 의사결정과 판단 등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나, 이런 생각이나 행동들은 사실 천도지사연(天道之使然), 즉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지 인간 자체의 자유의지나 사고에 의해서 발단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은 바로 천체의 운행에서 생겨나는 우주의 섭리가 인간에 의해서 표출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태에 부딪혔을 때, 하늘의 섭리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자께서 주역을 우환지서(憂患之書)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역을 알아야 이런 환란과 우환에서 벗어나 피흉추길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다(장태상, 2001: 78).

리처드 버크는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에서, ‘우주는 죽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크나큰 이변은, 살아 있는 지구라는 생명체가 인간에게 보여주는 무언의 암시이고 사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의 재이설(災異說)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지구 생명체의 의도와 뜻을 재빨리 알아차려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과학기술이 동양과학기술인 주역에서 비롯된 역학과 역술이다.

주역의 예측학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과학기술적 학문으로 발달한 학문이 동양오술과 운기학 그리고 천문기상학 등이 있다.

동양학 중에서 재난과 관련하여 소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학문으로 주역 점과 오운 육기학 기문

둔갑 태을신수와 육임 등의 학문이 있으나 가장 일반화된 것으로 오운육기와 주역 점을 소개한다.

첫째, 운기학(오운육기)의 기본 원리는 천도의 변화에 따라서 기화, 즉 기운이 변화고 그 결과 지구상의 만물 만사가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천도는 우주의 운동법칙으로서 일월과 오성 그리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자미원의 28수의 변화를 말하고 그에 따라서 지구상의 기운이 변화한다(양력, 2000: 29-34).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10천간 12지지이며 이를 차례대로 배합하면 60갑자가 된다. 즉, 년 월 일 시의 60갑자가 톱니바퀴와 같이 규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기후의 변화를 나타낸다. 기후의 변화는 만물만사의 生長收藏과 여러 가지 재해 재난의 변화를 일으킨다.

현대천문학에서 밝힌 태양 흑점의 11년 주기로 변화한다는 학설은 천간지지의 10-12년 주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양력, 2000: 487). 뿐만 아니라 지구 자전의 60년 주기는 지구전동주기 35년과 태양활동 22년 주기의 '절율'-59.23년일 수 있다는 것이다(양력, 474).

운기의 변화와 재난과는 매우 놀랄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 오운 육기의 이상기화와 재해발생 기제와 매우 일치한다. 이것은 현대의 재난학 생태학 환경보호학에 운기학을 접목 응용하면 과학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양력, 483).

재해학에 대한 운기학설의 중대한 의의는 운기 추산이 재해년도와 부합되는 확률에 있으며 더욱운기 이상기화는 재해발생 기제와 관계가 있다는 데 있다(양력, 2000: 483).

운기 주기가 반영하는 기화법칙은 태양 달 지구의 운행과 관계가 있으며 태양 흑점활동 법칙 그리고 기타 우주영향 요소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운기의 5년 6년 12년 30년 60년 주기가 포함하는 기화 변화는 우주천체 활동이 기화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반영이다. 운기 주기에 나타나는 비규칙적 이상 기화와 재해의 발생은 매우 큰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운기학설을 연구하는 것은 재해를 예측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를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모두 특수하고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양력, 483).

둘째, 주요한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를 다해도 판단이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주역 점의 의사결정 방법 이었다.

과학적 지식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정확한 예측력에 있다. 현대는 서양과학기술적 지식이 거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서, 모든 사회·자연·인간 현상에 대한 기술, 설명, 예측이 서양 분석과학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서양과학에 의한 사물의 이해, 설명, 예측은 완벽하지 않고 한계가 많다는 것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였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 한계를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의 의지 또는 자연의 섭리와 같은 절대적 요인을 완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배제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인간과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변화현상은 서양과학에 의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개념과 이론에 의한 설명과 예측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동양과학기술인 주역에서는 처음부터 초상적(超常的) 존재로서의 신 또는 우주론적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와 같은 신비적 요인을 배제시키고는 정확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변화를 기술, 설명,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변화를 설명, 예측하기 위해 수 천년 노력한 결과로 주역을 만들었다. 따라서 주역점술에 의한 예측은 사람의 지혜(서양과학적 지식)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힘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서양과학과 차원을 달리하는 또 다른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역점술이 객관적으로, 서양분석,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학문인 주역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예측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나 사회집단 또는 개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 학문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은 단지 예측의 수단과 방식에 있다고 본다. 현대는 특히 서양과학에서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변수만을 근거로 해서 분석적으로 판단하여 예측하지만, 주역점술에서는 신과 같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초상적 존재의 뜻을 파악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원래 占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생겼다. 초기에는 占을 쳐서 백성을 다스렸고, 占을 쳐서 가물 것 같으면 가뭄에 대비하고, 장마가 지냈으면 제방을 쌓던가 해서 미리 막았다. 그래서 이전민용(以前民用), 백성 앞에 모두 내놓고 썼다고 했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과 더불어 근심 걱정하는, 즉 여민동환(與民同患) 하는 것이 주역점이다.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슬그머니 점을 쳐서 혼자 슬쩍 행하는 것은 점 아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성인들도 옳게 占을 쳐서 바르게 신령에게 물어 신령이 알려주는 대로 행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占이라는 것이다(김석진, 1994: 332).

주역 점으로 예측을 하여 피흉추길한 사례들을 과거의 고전(춘추좌전), 근대의 일본사람인 고도탄상의 점친 사례인 고도역단(高島易斷), 우리 조상들의 점 사례, 예를 들면 조선시대 율곡 선생의 ‘십만양병설’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의 점친 내용, 세종대왕께서 ‘여진북벌’을 감행할 당시 총사령관에게 내린 교지에 “점을 안쳐도 안 되고, 점을 완전히 믿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반드시 점을 참조하라”고 당부한 사실, 그리고 최근의 주역 점술가들에게서 많이 보고 들었다.

## V. 결론

최근에 현대물리학자의 한 사람이며 『물리학의 도(The Tao of Physic)』와 『대전환(The Turnig Point)』을 저술한 카프라(F. Capra)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들로서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 이다.

그러므로 현 학계나 정부 기구의 특성인, 단편적인 방법론 안에서는, 이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는 어떠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없고, 다만 사회적 생태적 연관성의 복합적인 그물 속에서 문제들을 맴돌게 할 뿐이다.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그 그물의 구조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만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현 사회가 갖고 있는 조직과 가치 및 사상의 광범위한 변형을 의미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의식성장을 통한 세계관·우주관·인생관의 변화에 의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위기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첫째,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부계 사회적 특성, 둘째, 화석연료의 소진 문제, 셋째, 사상적·문화적 가치관의 문제이다(Capra, 1988 : 29-31).

현대 문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과학혁명, 계몽사상 그리고 산업혁명 등이 있다. 특히 현대의 지배적인 사상적·문화적 가치관 속에는 서양 과학적 방법만이 지식에 대한 유일한 접근법이란 신념, 우주는 기본적 물질적 구성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기계론적 우주관, 사회 속의 생활을 생존경쟁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통한 무제한의 물질적 진보에 대한 신념 등이 내포되어 있다(Capra, 1988: 31)

주역의 음양론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하면, 음적(陰的 : 여성적·수렴적·반응적·협동적·직관적·종합적)인 문화와 학문보다는, 양적(陽的 : 남성적·강요적·공격적·경쟁적·합리적·분석적)인 문화와 학문을, 직관적 지혜보다는 이성적 지식, 종교보다는 과학, 협동보다 경쟁, 자연 보존보다 자연 이용을 일관되게 선호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편중이 부계사회 제도의 뒷받침을 받고 또 과거 3세기 동안의 감각적 문화(sensate culture) 지배에 고무되어 현재 우리의 위기가 바로 그 근저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화적 불균형, 즉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 우리들의 가치와 태도, 우리들의 사회적·정치적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그 결과 극히 위험한 단계, 즉 사회적·생태계적·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차원의 위기에 도달하였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다만 몇 사람의 열성적인 계몽운동과 행동에 맡겨두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문명의 과다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철학과 과학기술의 낙후에 있다. 여기에서 인류는 증상에 딱 들어맞는 철학체계와 과학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여야

5)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환경 파수꾼인 톰 하트만(Thom Hartmann)이 그의 저서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The Last Hours of Ancient Sunlight)』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 인류가 귀 기울여야 할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과학기술이나 식량생산, 언론 폭력같이 우리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들은 우리 문화에서, 말하자면 세계관에서 생겼다. 세상 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세계관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재할용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하고, 산악제한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열대우림의 보존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한다. 설사 이 모든 바람직한 실천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의 근본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되풀이될 것이다. 설사 상온 핵융합 방식이 성공하여 석유 사용을 그만두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전기를 공급해준다 해도, 그것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진실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 즉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자연스런 인구조절과 산림복구, 공동체의 재창조, 물자 낭비의 감소는 이런 시각 변화가 있고서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고희민, 1978: 31). 그러한 과학기술과 철학체제로 『주역』과 주역에서 비롯한 역학과 역술을 들 수 있다.

과학사를 연구한 외국인 대학 박성래 교수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구 중세의 기독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같이 절대적이다<sup>6)</sup>. 따라서 현대사회 모든 부문에 나타나는 좋은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은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무시하고는 이해 설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문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영향력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위기도 현대과학기술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중의 하나이다.

즉, 현대사회의 위기는,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바드·노벨상 중심의 뉴턴·데카르트적인 물질론적 기계론적 과학기술과 과학철학과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물질적 가치에 지나친 편향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현대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 과학기술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으며 자기절제, 즉 정신·물질 일원론적이며 유기체론적이며 생태론적인 새로운 과학기술과 과학철학이 나와야 비로써 가능하다. 그것이 동양학이며 동양학 중에서도 주역에서 비롯된 역학과 역술이다.

뿐만 아니라 역학과 역술은 『주역』의 사상 철학을 구체화 하고 실용화한 과학기술이고, 현대사회 지배적인 서양과학기술과 상호보완적이고 새롭고 앞선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그 철학사상이 생명력 있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을 변화 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위 Mind Technology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와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 위기극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근본적인 대안은, 『주역』에서 비롯된 미아리 철학관 중심의 역학과 역술임을 확신 한다.

## 참고 문헌

6) 1967년 알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협회’를 만들어 미래학(future studies)이란 학문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한 선구자이며, ‘미래학의 대부’라 불리는 하와이 대학 미래학연구소장인 제임스 데이터(James Dator)는, 그가 엮은 미래연구 보고서인 『다가오는 미래(Advancing Futures)』의 서문에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해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양한 지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 변화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회변화의 주요 동력은 과학기술이며(인구, 지구환경 변화, 정치경제적 불안정, 문화변동 등), 다른 모든 ‘쓰나미’의 형성에 상당히 기여하는 이 과학기술에 우리가 반드시 ‘올라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므로 1967년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의 경구로 대체한다.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기술을 통해 인간다워진다. 가치관, 윤리, 관습, 종교적 신념, 법 등은 모두 인간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그리고 난 후 자신이 취한 행동의 결과로서 스스로에 관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와 관련해 형성된다. 과학기술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자의식 및 사회의식도 변한다.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자의의식은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가능하거나 강요되는데 둘 다인 경우, 새로운 기술이 가능케 한 행동은 기존의 가치관과 규칙들에 도전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는 변화하는 것이다(Dator, 17).

- 고회민. 1978. 정병석 역. 周易哲學의 理解. 서울: 문예출판사.
- 권일찬. 2010. 동양과학개론.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 권일찬. 2002. 동양과학의 학문적 인식체계모형고찰. 한국정신과학회지. 6(1): 55-69.
- 김석진. 1994. 周易講解 상.하. 서울: 대유학당.
- 마루야마 도시아끼. 1992. 박희준 역. 기란 무엇인가. 서울: 정신세계사.
- 박성래. 1990. 동아시아 전통과학과 도교, 도교와 과학. 서울: 비봉출판사.
- 양력. 2000. 중의운기학. 서울: 법인문화사.
- 이재은 외. 2006.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장태상. 2001. 기문둔갑 예측학. 서울: 전통문화사.
- Bentov, Itzhak. 1995. 류시화, 이상무 역. 우주심과 정신물리학(Stalking the Wild Pendulum. 서울: 정신세계사.
- Broomfield, John. 2002. 박영중 역. 지식의 다른 길(Other Ways of Knowing). 서울: 양문.
- Carpra, Fritjof. 1988. *The Turning Point*. Bantam books: Toronto.
- Dator, James. 2008. 우태정 역. 다가오는 미래(Advancing Future). 서울: 예문.
- Krishnamurti, Jidu. 2007. 정채현 역. 마음과 생각(On Mind and Thought). 서울: 도서출판 고요아침.
- Skytner, Lars. 2005. *General System Theor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Pte. Ltd.
- Wilhelm, Richard. 1996. 진영준 역. 주역강의. 서울: 소나무.

---

**權日燦**: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1988)를 받고, 1982년 9월부터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관심 분야는 동양행정론, 동양학적 의사결정론, 동양학적 변화발전론, 재무행정, 발전행정, 행정계량분석 그리고 행정행태론 등이다. 저서로는 “하바드·예일보다 미아리철학관이 더 위대하다(2006)”, “동양과학개론(2010)” 등이 있다(kilchan@chungbuk.ac.kr).

투 고 일: 2011년 08월 02일  
수 정 일: 2011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1년 08월 25일

## I-Ching Approach to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l Chan Kwon

Basic cause of modern society crisis is scientific view of Newton–Descart mechanic reductionism and avarice of capitalism. Therefore, to overcome the crisis of modern society we develop an organic, ecological and holistic scientific view and self moderation. But moder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s superficial and post hoc. Eastern discipline, especially I Ching(周易) is monism of mind and matter, ecological, holistic, and spiritual science. And I Ching help to forecast disaster.

**Key words:** modern society crisis, modern science and capitalism, I-ching